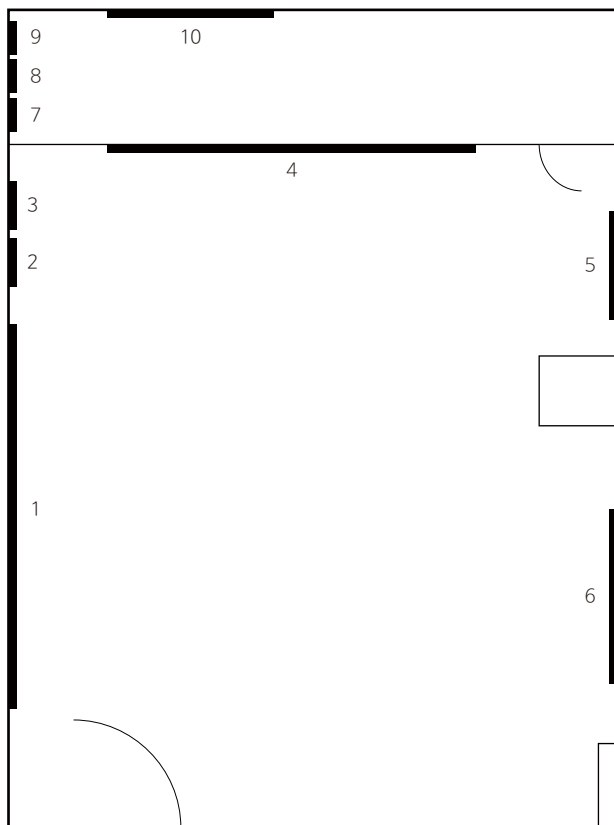


현오: 새벽에 남은 새
Hyeon O: A Bird Lingerig at Dawn

2026. 02. 05 - 2026. 02. 25

ingahee.com | in@ingahee.com



01. 첫 비행, 2025, Acrylic on Korean paper mounted on wood panel, 194 × 261cm
02. 오래된 나무, 2025, Acrylic on Korean paper mounted on wood panel, 27.4 × 34.8cm
03. 그믐달, 2025, Acrylic on Korean paper mounted wood on panel, 40 × 40cm
04. 그날의 바다, 2025, Acrylic on Korean paper mounted wood on panel, 130 × 194.3cm
05. 새의 시선, 2025, Acrylic on Korean paper mounted wood on panel, 91 × 72.7cm
06. 물가로 가는 길, 2025, Acrylic on Korean paper mounted on wood panel, 162 × 112cm
07. 걷는 물고기, 2025, Acrylic on Korean paper mounted on wood panel, 27.4 × 34.8cm
08. 진주목걸이, 2025, Acrylic on Korean paper mounted on wood panel, 27.4 × 34.8cm
09. 야간 비행, 2025, Acrylic on Korean paper mounted on wood panel, 27.4 × 34.8cm
10. 밀물, 2025, Acrylic on Korean paper mounted on wood panel, 117 × 91.1cm



현오(한국, 1996년생)는 효율과 속도의 숭배, 경쟁과 소비가 일상화된 사회에서 발생하는 자아실현의 모순과 불안을 회화로 풀어낸다. 서브컬처와 애니메이션의 시각 언어를 차용한 그의 작업은 동시대 청년의 감정, 멸종과 생존의 긴장, 사회적 구조의 균열을 포착한다. 친숙한 대중문화의 형식을 빌려 무거운 주제를 가볍게 전달하며, 세대적 공감과 비판적 성찰을 동시에 유도한다. 주요 전시로는 Expired Malfunctions (OVO 갤러리, 타이베이, 2025), 〈겨울의 온기〉 (인가희갤러리, 서울, 2024), Summer Show (Allouche Gallery, 뉴욕, 2024)가 있다.

새벽에 남은 새

현오의 회화는 이야기의 시작이나 결말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화면은 특정한 상태에 머문다. 인물들은 어떤 행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사건은 이미 지나갔거나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 회화가 붙잡고 있는 것은 선택의 순간이 아니라, 선택 이전의 시간—아직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채 머뭇거리는 상태이다. 이러한 정지는 동시대 개인이 사회적 구조 속에서 경험하는 압력과 유예,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감정의 밀도를 시각적으로 응축한다.

이번 전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공간은 바다이다. 그러나 이 바다는 감상적이거나 낭만적인 자연이 아니다. 화면 속 바다는 일식과 월식의 시간대를 통과하며, 낮과 밤의 경계에 놓인 채 묘사된다. 빛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지만, 충분히 약화된 상태로 존재한다. 이 빛의 약화는 장면을 어둡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인물과 사물의 윤곽을 또렷하게 드러낸다. 빛이 가려지는 이 순간은 소멸이 아니라 분리의 조건이 된다. 집단의 일부로 인식되던 존재는 이 경계의 시간 속에서 주변으로부터 분리되어, 개별적인 존재로 떠오른다.

〈그날의 바다〉에 등장하는 긴 머리의 소녀는 화면 밖 어딘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 그녀는 특정한 서사를 지닌 인물이라기보다,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에 위치한 존재처럼 보인다. 실존 인물의 재현이라기보다 자연의 감응체에 가까운 이 형상은, 광활한 현실 앞에 놓인 개인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빛, 낮도 밤도 아닌 새벽의 시간대는 이 인물이 어느 한쪽으로 규정되지 않도록 만든다. 현오의 인물들은 종종 인간, 동물, 혹은 자연의 일부로 명확히 분류되기를 거부하며, 이러한 애매한 존재성은 전시 전반을 관통하는 중요한 시각적 전략이다.

작업은 장지 위에 아크릴과 먹을 물에 묽게 개어 수십 차례에 걸쳐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물감은 빠르게 덮이지 않으며, 화면은 반복적인 축적을 통해 서서히 밀도를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화면 곳곳에는 의도적으로 칠해지지 않은 흰 여백이 남는다. 이 여백은 결핍이나 미완의 흔적이 아니라, 개입을 유보한 상태로 기능한다. 색이 축적된 영역과 비워진 영역은 동일한 화면 안에서 긴장을 이루며, 회화가 하나의 완결된 의미로 수렴되는 것을 거부한다. 동양화의 여백을 연상시키는 이 비어 있음은, 이미지가 말하지 않는 것을 관객이 감각적으로 인지하도록 만든다.

현오의 인물들은 종종 관객을 정면으로 응시하거나, 화면 너머 먼 곳을 바라본다. 이 시선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않으며, 해석을 지시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관객의 위치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응시는 질문을 던지는 행위라기보다, 질문이 발생하는 조건을 형성하는 장치에 가깝다. 관객은 화면 속 인물과 동일한 시간대—아직 비행하지 않았지만 이미 머무르기만 하는 상태를 벗어난 순간—에 놓이게 된다.

전시에 등장하는 새, 물고기, 오래된 나무, 달과 같은 존재들은 모두 기능적으로 완전하지 않다. 걷는 물고기, 야간 비행을 하는 새, 죽었는지 살아 있는지 분간하기 어려운 나무는 생존과 적응의 은유이지만, 동시에 결함을 내포한 존재들이다. 이들은 목표에 도달한 존재가 아니라, 불완전한 상태로 지속되는 존재들이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성취나 극복의 서사를 제안하기보다, 버티고 머무르며 다시 날아오를 준비를 하는 시간에 주목하게 만든다.

〈새벽에 남은 새〉는 순응과 저항을 대립적으로 배치하지 않는다. 대신 그 사이에 존재하는 회색의 시간을 드러낸다. 아직 날아오르지 않았지만, 이미 이전의 자리에는 머물지 않는 상태. 이 회화들은 동시대의 삶을 영웅적 서사로 환원하지 않으면서도, 개인이 자기만의 리듬과 밀도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조용히 기록한다. 여기서 회화는 해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이 경계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지를 묻는다.